

露西亞의 思想史上 헤겔主義의 存在 (四)

(-양코·야-넬說에 依하여-)

田元培

베른노키-는 포샤에브와가□ 詩人의 詩를 公開하였다. 왜 그런고 하니 이 詩人은 □□그러한 「□□하고 깃븐 存在」의 □지 아니었든 까닭이었다. 「眞正한 詩人은 우지 안는 것이다」 베른노키-는 「□□□□□□□」이라고 論한 다른 □文에서 이러케 말하였다. 모든 詩는 하느님의 □述을 □敎하지 안으면 안 된다. 베른노키-는 이 世界와의 □和 속에서 사렸다. 그는 어떠한 □□에라도 自己의 □□을 □□할 수가 업섰다. □□은 그의 生活에 잇서서는 決定的인 □□史나 當時 베린스키-는 말할 수 업는 □□한 生活을 하고 잇섰다. 그런 데도 不拘하고 □과 □□과의 □□에 對한 헤겔의 公式은 그에게 잇서서는 形而上學的 □□가 되엿섰다. 이 □□는 베린스키-의 原因을 論理化하고 이 原因의 必然性을 □□하였다. 헤-겔의 이 公式은 그의 □□만 □□□을 □□시키고 □□하였다. 그는 헤-겔의 公式 업시는 도모지 살 수가 업섰다. 모든 □□의 □性的 內容에 對한 □□는 베린스-키 自身의 □□의 □□에의 □□가 되엿을 것이다. 아니다. 에-겔의 形而上學은 베린스-키을 □□에서 □□하고 그의 生活의 宇宙的 自己□□을 □□케 하였든 것이다. 客觀的 世界의 意味를 具□하고 잇는 現實이란 무엇인가? 民族의 歷史 우에 나타나는 「□□精神」이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? 베린스키-는 이러한 □□을 □□한 적은 한 번도 업섰다. 베린스키- 뿐이 아니라 이 時代人은 누구나 勿論하고 모다 이러한 現實의 理性的 性格에 關한 헤-겔의 □□를 信仰하고 잇서다. 그들에게 對하여는 이 世界를 肯定하는게 □□였스며 露西亞의 現實 晝-티즘을 肯定하는것이 □□였다. 그들의 눈에는 그때 露西亞의 現實이 모다 必□이오 □□□□力을 가진 것이다.

「君은 이 世上의 가장 □□한 □□까지도 □□으로 보는가? 따라서 이러□□도 實在한다고 생각하는가?」 □□은 베린스키-에 向하여 이러케 質問한 일이 잇섰다. 그에 對하여 베린스키-는 「勿論」이란 一言으로 對答하였다 한다.

그러나 이러한 □□도 오매 □□하지는 안헀다. 베린스키-는 一八四〇年부터는 次次로 自己의 □□를 □□하고 **그라** 그 가티 □□하든 □□-의 理想主義에 도라갔다. 現實 그 中에도 露西亞의 現實이 決코 理性的이 아닌 것을 □□하였다. 그리하여 베린스키는 不正한 것, □□한 것, 無意味한 것을 □□ 못하는 □□□□의 哲學者와 訣別하기 시작하였다. 그는 헤-겔에게 向하여 □□과 □何과 필립프 二世와 □□□ 人間理性的의 모든 代□을 □求하였다.

露西亞 哲學者 中에 이러한 似而非 헤-겔主義者를 올라하면 우리는 □□치 안코 莫斯科大學의 敎□는 法理學者이든 피-타, 레드킨(一八〇八~一八九一)을 들을 것이다. 그는 伯林에서 헤-겔의 講義를 들은 最初의 露西亞人이었다. 레드킨의 헤-겔主義는 베린스키-의 □神的 浪漫主義라든지 現實의 理性的 內容에 對한 信仰과는 □□의 一致點도 업는 것이었다. 레드킨은 露西亞의 □□의 問題에 잇서서 가장 □□한 □□였다. 왜 그런고 하니 그는 헤-겔의 正-反-합을 文字대로 □□한 것에 不過한 것이기 때문이었다. (何□□□를 天主教, 프로테스탄트敎, **正**敎도 區分한 홀야코브에 잇서서나 또는 露西亞의 歷史와 正-反-합의 辨證法的 科程으로 □說한 아라사□ 「잇서서도 우리는 그러한 □□한 □□을 發見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.)